자비 손길, 인도 향하다…비구니회 의료봉사

11월 22~28일, 분황사 의료센터서
520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해
초음파 기기·후원금·컴퓨터 전달
광용 스님 "주민 건강이 우리 행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관세음학교 학생들에게 간식과 영양제 등을 선물하고 있는 회장 광용 스님과 임원진 스님들.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도를 찾아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 기초검진과 의약품 지원 등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국경을 넘어 자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1월 22~28일 인도 붓다가야 분황사 내 의료센터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치료하는 의료캠프를 실시했다. 의료캠프에는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과 산부인과 전문의 권현옥 불자, 비하르주 프리메리 메디컬센터 현지 의사와 외과 학생 10여 명이 동참했다.

인도 붓다가야 지역은 부처님의 자취가 깃든 곳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체중 미달과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하고, 여성들은 빈혈과 자궁 관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관절질환 역시 흔한 문제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료봉사단은 분황사 의료센터와 붓다가야 세와비거하 마을 관세음학교를 오가며 총 520여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주민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에 대한 사용법 설명과 질병의 적절한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권현옥 산부인과 전문의는 초음파 검사를 활용한 여성 특화 진료를 진행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일러줬다.

스님들은 의료봉사와 함께 현지 아이들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서 검진받는 것이 두려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볼펜과 인형, 비타민을 선물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관세음학교 전교생에는 간식과 신발, 영양제, 기생충 약을 제공했다.

의료봉사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기금 1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의료약품, 컴퓨터 1대, 3000만원 상당의 최신 초음파 기기를 분황사 의료센터에 지원했다. 초음파 기기는 권현옥 산부인과 전문의가 후원했다.

회장 광용 스님은 "이곳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셨다. 붓다가야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은 곧 우리 행복이자 수행"이라며 "이번 의료봉사 캠프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후원에 도움을 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 스님들과 분황사 의료센터 개원을 지원한 백천문화재단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붓다가야 지역주민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는 의료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캠프로 분황사 의료센터 운영 실정을 파악한 전국비구니회는 향후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비구니회의 의료캠프는 인도 언론 SBN(Saurashtra Bharat)에 소개되는 등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조계종복지재단 '2024년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선정

11월 25일 단체·개인 등 32명 발표
총무원장 표창에 보문복지회 선정
12월 5일, 전통문화공연장서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11월 25일 불교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들을 발굴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정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선발을 이어왔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교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에서 추천을 받았고 올해는 법인, 시설 등 단체 11곳과 개인 21명이 선정됐다.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력한 이들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이 시상된다.

총무원장 표창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가 받는다. 보문복지회는 불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 중으로 후원품 전달 등을 통해 여수지역 사회 내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 단체 및 개인 10곳이 선정돼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문'은 김용학 공주시니어클럽 관장이 선정됐다. 김 관장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관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부문'에 김영광 연화보호작업장 선임 직업훈련교사, 이경심 홍천군장애인복지관 과장, 이욱재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BTN불교TV가, '자원봉사후원 활동부문'에 고명순 판교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와 조준분 황토정 대표 외 단체 4곳이 수상한다.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복지재단은 2025년에 맞이하는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재단 창립 3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대회는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사 김장 나눔전
"첫눈 속에 이웃사랑 나눠요"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올해 김장은 총 8t 분량, 4000포기의 배추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약 3000포기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주민소통센터 등을 통해 종로구 거주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행사에 앞서 해남군과 NH농협 종로금융센터는 각각 신선한 배추와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담화 원명 스님은"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정성껏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선 기자

서울경찰청 송년법회…"대한민국 안전 위해 정진할 것"

11월 27일 봉은사 법왕루서
200여 불교, 경찰 인사 동참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 경찰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불퇴전의 힘을 주시옵소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불교회가 11월 27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한 '불기 2568년 경찰 송년 대법회' 동참대중이 발원문 낭독으로 이같이 서원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서울 경찰



불자들이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부처님 원력으로 새해에도 안전한 임무수행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서울경찰청 경승실장), 봉은사 부주지 허허 스님, 법주사 한주 각운 스님, 서울청 경승 진철 스님, 강남경찰서 경승실장 공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법문에서 "경찰의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알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한 번씩 스스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경승들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서울 경찰청의 모든 불자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축사에서 "우리 서울 경찰은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평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재 기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명예박사' 학위

중앙승가대, 11월 26일 수여식
종단 발전·불교문화 전승 기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이 지역불교 활성화와 불교문화 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사진〉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11월 26일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성효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성효 스님은 용주사 주지로 종단 안정과 발전에 진력하고, 다양한 대외적 활동으로 불교문화를 알린 공적을 높이 인정받아 중앙승가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3000여 동문 스님들과 교수, 전직원을 대표해 성효 스님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한다"며 "중앙승가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성효 스님께 감사하다. 후학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효 스님은 "오늘 중앙승가대 동문이 됐다. 서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모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중앙승가대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도 동참해 성효 스님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김내영 기자

사회부·종평위, 종교 화합 학술세미나

12월 11일, 16일 두 차례 진행
천진암·주어사지 등 주제로

불교계가 광주 천진암, 여주 주어사지, 홍성 홍주읍성 등지에서 벌어지는 천주교 성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는 12월 1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교편향을 넘어 화합의 장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천주교의 역사 왜곡과 지자체의 종교 편향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종교 간 평화 공존을 위해 열린다.

첫 번째 학술세미나는 '천진암-주어사지 종교갈등 해결을 위한 실체적 접근'을 주제로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8세기 후반까지 사세가 상당했던 천진암과 주어사는 당대 학자들에게 강학의 장소로,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불교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세미나에서는 역사적 고증과 문헌을 기반으로 한 발제를 통해 전체적 상황을 살펴보고, 두 사찰지에 대한 천주교의 성지화에서 비롯된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열리는 두 번째 학술세미나는 '홍성지역 불교사의 재조명-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불교사원지'를 주제로 12월 16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가령 기자

청담·광동학원, 우정과 화합 한마당

11월 23일 청담고 실내체육관서
교직원 간 화합·친목 다져



불교 종립학교인 청담학원과 광동학원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화합 한마당을 열었다.〈사진〉

청담학원(이사장 태원 스님, 도선사 주지)과 광동학원(이사장 인묵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이 11월 23일 평택 청담고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기 불교종립학교 친선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담·광동학원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당대회에서는 '훌라후프 단체전' '파도타기' 등 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오늘 화합 한마당은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다"며 "광동학원과 청담학원 가족의 우정과 화합이 한층 더 깊어지고 돈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청담학원과 광동학원이 친선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진흥원, 군포교 지원금 7000만원 전달

11월 25일 조계종 군종교구에
'2024 젊은 불교 활성화' 사업

진흥원이 군포교 활성화를 발원하며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법원 스님)에 지원금을 쾌척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5일 '2024년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격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군포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한구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군승 등 군종교구 관계자들의 지원과 노력은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희망적이고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청년 장병에게 불교의 지혜와 자비 가르침 전하고, 청년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기자